

유아교사의 기질이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안 현 진** · 문 혜 련***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음악연수 경험과 장학 경험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을 알아보고, 유아교사의 기질과 음악교수효능감 간의 관계 및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유아교사 321명이었다. 자료분석은 t-검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연수 경험에 따른 개인적 효능감과 음악장학 경험에 따른 일반적 효능감과 개인적 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기질과 음악교수효능감 간에 높은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유아교사의 기질 중 사회성이 증가할수록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일반적 효능감도 증가했으며, 정서성이 낮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개인적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유아교사의 기질은 음악교수효능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내재적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 주제어: 유아교사, 음악연수와 장학 경험, 기질, 음악교수효능감

차 례

- I. 서론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연구도구
 - 3. 연구절차
 - 4. 자료분석
- III. 연구결과
 - 1. 음악연수와 장학 경험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
 - 2. 유아교사의 기질과 음악교수효능감 간의 관계
 - 3. 유아교사의 기질이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IV.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

** 아름드리 어린이집 교사

***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helena0915@naver.com)

I. 서론

유아들은 자신의 감정, 생각 등을 언어로 표현하는데 미성숙하다. 유아들이 언어 대신 음악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를 갖고 정서적 안정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음악활동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음악활동과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지속적인 음악적 자극은 유아들에게 심미적인 음악적 체험뿐 아니라 음악적 표현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박주연, 2014). 유아기는 음악성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영유아의 음악적 환경과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Choksy, 1988). 또한 유아들은 음악활동을 통해 전인적 성장 발달을 이루어가게 된다(Campbell & Scott-kassner, 2013). 따라서 유아기에 효과적인 음악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통한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아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아교사는 음악의 기술적인 면보다는 음악을 즐기고 행복해하며, 음악적인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음악에 대한 유아교사의 태도와 지식은 음악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결정지을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유아교사들은 다른 활동영역에 비해 음악활동을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으며 음악 경험과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여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진성, 문혁준, 2006; Murphy & Brown, 1986). 교사들이 음악에 대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는 음악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지고 오는 원인이 된다(방은영, 박찬옥, 2005; 이민정, 2002). 이는 유아교사가 음악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자신감이 없을 때 유아 발달에 적합한 음악적 자극과 음악활동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교사가 음악활동에 대해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질적으로 높은 음악활동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학습자의 학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사의 자기교수능력에 대한 신념인 교사효능감(Gibson & Dembo, 1984)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음악교수효능감은 교사가 음악교수활동을 할 때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다(방은영, 박찬옥, 2005). 교사효능감이 높은 교사는 효능감이 낮은 교사보다 학습자 중심으로 활동을 계획하고 전개하며(김순남, 2000), 영유아의 학습효과를 증대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김민정, 2007). 또한, 유아들의 학습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Ashton & Webb,

1986). 음악교수효능감에 관한 연구들도 유사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을 경우, 자유선택활동에서의 음악 영역 구성정도가 낮았으며(김명순, 이수경, 김현주, 2007), 하루일과 중 아주 적은 시간동안만 음악활동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였다(황인주, 2014). 반면, 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을 경우 유아중심의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노력을 하였고(김순남, 2000),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이슬기, 2013), 학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수방법을 탐색하였다(이희진, 2010). 이와 같이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은 유아의 음악적 능력과 음악적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혜선, 김수영, 2008).

음악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예측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가 지니는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와 인식 및 접근방식이 영유아의 음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이민정, 2002; Haines & Gerber, 1996), 음악활동의 실재를 위한 계획과 노력은 지도교사가 음악활동에 관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난다(Murphy & Brown, 1986)고 하였다. 교사의 자신감 결여 또는 교수영역에 대한 태도가 교재교구나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점보다 교수 실체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김은심, 박수미, 2003; 조형숙, 1998). 이와 같이 교사가 음악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신감이 있을 때 효과적인 학습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교사의 개인적, 내재적 특성이 교수활동과 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질은 교사의 개인적, 내재적 특성 중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적 특징이다. 지금까지 널리 쓰이고 있는 기질 개념은 Thomas와 Chess(1977), 그리고 Buss와 Plomin(1984)의 것이다. Thomas와 Chess(1977)는 질적 분석을 통해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반응이 느린 아이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질 간 조화를 강조한 ‘조화의 적합성’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Buss와 Plomin(1984)의 개념을 적용하였다. 이 개념체계는 한국에서도 사용의 간편성, 내용의 타당성과 검사의 신뢰성을 인정받아 임상현장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정현희, 2003).

교사의 기질은 교사와 유아관계의 중요한 변인이 되고(김형주, 2010), 교사의 안정된 기질은 역할수행에 있어서도 긍정적 영향을 주며(김세은, 2014), 교사효능감과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유정아, 2017). 또한, 기질의 하위요인인 사회성이 높아질수록 교사-부모 간 협력관계가 증가하고, 정서성이 높아질수록 교사-부모의 어려움이 증가하였으며(임미경, 2010), 교사의 기질에 따라 역할수행능력에도

차이가 있었다(우순형, 2016). 기질은 유아의 자기주도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서란아, 2016). 즉, 유아교사의 기질은 자신이 하는 역할에 대한 태도와 자신감, 그리고 교사가 맺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유아교사의 개인적, 내재적 특성인 기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음악교수효능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교사의 훈련 정도와 교육수준(Westervelt, Sibley, & Schaack, 2009),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의 질(Gallagher & Mayer, 2008) 등은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유아교사의 음악연수 경험과 장학 경험은 음악교수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이 음악관련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유아교사의 기질과 음악교수효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유아교사의 기질이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음악활동을 자신감 있게 지도하기 위한 요인 중 교사의 기질의 중요성을 제언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사의 음악연수와 장학 경험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은 어떠한가?
2. 유아교사의 기질과 음악교수효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유아교사의 기질이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성실하게 응답한 321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연령은 만 36세 이상이 107명(33.3%)로 가장 많았고, 만 26-30세가 93명(29%), 만 31-35세 이하가 63명(19.6%)이었다. 교직경력은 6년 이상이 143명(44.5%)로 가장 많았고, 3년-6년미만이 101명(31.5%), 1년-3년미만이 59명(18.4%), 1년 미만이 18명(5.6%)이었다. 교사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상이 180명(56.1%)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 이하가 141명(43.9%)이었다. 음악연수 경험에 있어서는 '없다'가 212

명(66%)이었고, ‘있다’가 109명(34%)이었으며, 음악수업장학 경험은 ‘없다’가 277명(86.3%)이었고 ‘있다’는 44명(13.7%)이었다.

2. 연구방법

1) 유아교사의 기질

본 연구에 사용된 교사의 기질 측정도구는 Buss와 Plomin(1984)의 성인용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척도에 대하여 이은주(2005)가 번안, 수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20문항이며, 정서성(Emotionality), 활동성(Activity), 사회성(Sociability)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성 11문항, 활동성 5문항, 사회성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평가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평가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의 기질 중의 해당하는 성향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는 부정적이고, 활동량은 많으며, 사회성은 높음을 의미한다. 활동성에 대한 신뢰도 분석에서 설문문항 7번(바쁨을 느끼는 태도)과 설문문항 10(시간을 빠르게 느끼는 차이)에서 신뢰도 수치가 낮아서 삭제하였으며, 문항 7과 10을 제외한 본 척도의 구성 내용 및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기질(EAS) 하위 요인의 구성내용 및 신뢰도

하위요인	구성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신뢰도
정서성	감정기복이 있어 쉽게 기분이 나빠지거나 화를 내는 성향	3. 4. 5. 9. 11. 12. 13. 14. 16. 18*.19*	11	.81
활동성	바쁘게 움직이고 활동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성향	2. 8. 17	3	.64
사회성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성향	1. 6*. 15. 20	4	.65
전체			18	

*역코딩 문항

2)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iggs와 Enochs(1990)가 개발한 과학교수효능감 STEBI (Science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를 조형숙(1998)이 번안, 수정하고 방은영과 박찬옥(2005)이 음악교수효능감 MTEBI(Music Teaching Efficacy Belief Instrument)로 재구성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음악 교육 결과에 대한 기대감인 일반적 효능감 9문항과, 개인적인 음악 교수 능력에 대한 신념인 개인적 효능감 15문항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지 문항은 Likert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긍정문항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채점하고, 부정문항의 경우는 역 채점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음악교수효능감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구성 내용 및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음악교수효능감 하위 요인의 구성내용 및 신뢰도

하위요인	구성내용	문항 번호	문항수	신뢰도
일반적 효능감 (결과에 대한 기대감)	교육이 유아의 음악에 대한 태도 및 개념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기대감	1, 4, 6, 8, 10*, 11, 15*, 20*, 23*	9	.71
개인적 효능감 (음악교수 능력에 대한 신념)	교사 자신이 유아에게 유아음악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지의 능력에 대하여 갖는 신념	2, 3*, 5, 7, 9, 12*, 13, 14*, 16*, 17, 18*, 19*, 21, 22, 24*	15	.83
전체			24	

*역코딩 문항

3. 연구절차

본 연구에 앞서 2017년 10월 02일부터 2017년 10월 05일까지 유아교육기관장 5명 유아교사 3명을 대상으로 측정도구의 문항 이해에 대한 어려움 및 적절성과

소요시간 등을 살펴보았다. 소요시간은 15분이었으며, 측정도구 문항 이해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아 수정 없이 검사도구 그대로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10월 10일~11월10일까지 설문을 진행하였고,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연구협조를 얻어 설문에 동의한 기관에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을 통하여 재직 중인 유아교사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350명 가운데 설문작성 동의서(부록1)에 동의한 340명(97%)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일부 문항의 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9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21부(91%)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 처리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 21.0 program을 활용하여 전산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유아교사의 음악 연수와 장학 경험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을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산출하였다. 둘째, 유아교사의 기질 및 놀이성과 음악교수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산출하였다. 셋째, 유아교사의 기질 및 놀이성이 음악 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산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음악연수와 장학 경험에 따른 음악교수효능감

음악연수와 장학 경험 유무에 따른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은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음악연수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개인적 효능감($t=2.748$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음악장학 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일반적 효능감($t=2.901$, $p<.01$), 개인적 효능감($t=4.363$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음악연수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개인적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음악장학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일반적 효능감과 개인적 효능감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 3> 음악연수와 장학 경험에 따른 유아교사 음악교수효능감의 차이

N(321)

음악 교수효능감	연수 경험	있다 (n=109)	없다 (n=212)	<i>t</i>	<i>df</i>	<i>p</i>
		M(SD)	M(SD)			
일반적 효능감		3.59(.447)	3.57(.429)	.422	319	.673
개인적 효능감		3.34(.514)	3.18(.419)	2.748**	183.72	.007
음악 교수효능감	장학 경험	있다 (n=44)	없다 (n=277)	<i>t</i>	<i>df</i>	<i>p</i>
		M(SD)	M(SD)			
일반적 효능감		3.75	3.55	2.901**	319	.004
개인적 효능감		3.51	3.19	4.363***	319	.000

** $p < .01$, *** $p < .001$

2. 유아교사의 기질과 음악교수효능감 간의 관계

유아교사의 기질과 음악교수효능감 간의 관계를 알아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유아교사의 기질과 음악교수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구분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일반적 효능감	개인적 효능감	음악교수 효능감 총점
정서성	1.00					
활동성	-.190**	1.00				
사회성	-.283**	.371**	1.00			
일반적 효능감	-.142*	.124*	.175**	1.00		
개인적 효능감	-.368**	.215**	.213**	.415**	1.00	
음악교수 효능감 총점	-.335**	.211**	.232**	.734**	.922**	1.00

* $p < .05$, ** $p < .01$

유아교사의 기질의 하위요인과 음악교수효능감 총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활동성($r=.211, p<.01$), 사회성($r=.232, p<.01$) 모두 정적 상관이 있으며, 정서성($r=-.335, p<.01$)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의 하위요인과 음악교수효능감 하위요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성과 일반적 효능감($r=-.142, p<.05$)은 부적(-)상관이 있으며, 상상력($r=.124, p<.05$), 사회성($r=.175, p<.01$)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효능감은 정서성($r=-.368, p<.01$)과는 높은 부적(-)상관이 있으며, 상상력($r=.215, p<.01$), 사회성($r=.213, p<.01$)과는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교사의 기질이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사의 기질이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유아교사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이 음악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공차
일반적 효능감	정서성	-.101	-1.757	.920
	활동성	.068	1.147	.862
	사회성	.175	3.181**	
상수= 3.040 $F= 10.116$ $R= .175$ $R^2= .031$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공차
개인적 효능감	정서성	-.339	-6.470***	
	활동성	.150	2.863**	
	사회성	.075	.186	.815
상수= 3.752 $F= 29.629$ $R= .396$ $R^2= .157$				

** $p<.01$, *** $p<.001$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유아교사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이 일반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의 기질 하위요인 중 사회성

($t=3.181$, $p<.01$)이 유아교사의 일반적 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3.1%였다. 이는 유아교사의 기질 중 사회성이 증가할수록 일반적 효능감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교사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이 개인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의 기질 하위요인 중 정서성($t=-6.470$, $p<.001$)이 유아교사의 일반적 효능감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활동성($t=2.863$, $p<.01$)은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15.7%였다. 이는 유아교사의 정서성이 낮으며 활동성이 높을수록 개인적 효능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음악연수와 장학 경험 유·무에 따라 음악교수효능감에 차이가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기질이 음악교수효능감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별로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음악연수 경험 유무에 따라 개인적 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학 경험의 유·무에 따라 일반적 효능감과 개인적 효능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연수 경험과 장학 경험이 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을 높여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결과는 이희진(2010)의 연구에서 연수경험이 많을수록 음악교수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질 높은 수업을 위한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교사연수와 장학이라 할 수 있다. 교사연수는 교사들의 현장교육 실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으며(백병부, 성열관, 2011; Guskey, 2002), 장학 또한 행정 업무이기 이전에 수업의 향상과 개선이 그 본질이다(조부경, 백은주, 서소영, 2001; 주삼환, 2003).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연수는 형식적인 연수가 될 수 있으며(정일환, 2002), 단시간동안 이루어지는 경우 현장 적용의 어려움이 있다(Wilam, 2007). 따라서 유아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실제적인 유아교사연수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맥락에 따라 음악교육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사연수가 충분하게 이루어져 음악교수효능감도 높이고 음악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학의 경우에는 외부 장학자가 와서 장학할 경우 친밀감과 상호 신뢰의 어려움이 있고 유아교육기관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존재한다(조부경 외, 2001). 따라서 원내 장학이 체계적이고 질 높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원장과 원감 등 유아교육기관의 관리자들이 유아음악교육에 대한 내용지식과 구체적인 교수방법 등에 대해 교육받고 연구하여 지도하거나, 동료장학을 통해 음악과 관련된 좋은 수업의 모본을 나누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 유아교사들의 음악교수효능감도 보다 높아질 수 있으며 질 높은 음악활동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라 사료된다.

둘째, 유아교사의 기질과 음악교수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아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 총점과 유아교사의 기질 하위요인인 활동성과 사회성에서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정서성에서 높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수효능감의 하위요인과 기질 하위요인 간에도 모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활기차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좋아하는 활동성과 사회성이 높은 기질의 교사가 음악교수효능감도 높으며, 감정기복이 심하고 쉽게 화를 내는 성격을 가진 교사의 경우 음악교수효능감이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을수록 역할수행을 잘 한다고 보고한 김세은(2014)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하며, 유정아(2017)의 연구에서 유아교사의 기질과 교사효능감 간의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한 결과와도 유사하다. 활동성과 사회성이 높고 정서성이 낮은 교사일수록 안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유아와 즐겁게 음악활동을 하여 높은 음악교수효능감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유아교사의 기질(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이 음악교수효능감(일반적 효능감, 개인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하위요인별로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질의 하위요인인 사회성이 일반적 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정서성과 활동성이 개인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유아교사의 기질 중 높은 사회성은 음악교육이 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일반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고, 낮은 정서성과 높은 활동성은 교사자신이 유아의 음악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개인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아교사의 기질이 쾌활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정서가 안정적일수록 음악교수효능감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사의 안정된 기질이 교사효능감을 높인다는 유정아(2017)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따라서 음악교수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기질이 중요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정리하면, 유아교사의 기질은 음악교수효능감을 높이는 중요한 변인이며, 결과적으로 음악활동을 수행하는데 긍정적 인식과 함께 자신감을 갖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교사의 기질에 관련된 연구들 중 유아교사의 정서적 표현이 유아의 긍정적 발달을 돕는다는 결과(김현진, 2004)가 있다. 기질은 타고난다고 하지만 유아교사는 유아들에게 여러모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밝게 상호작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악교수효능감을 높혀 질 높은 음악환경을 만들어주고 효과적인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유아교사의 기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정적인 정서가 변화되고 보다 활기차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예비교사교육, 현직교사교육에 있어 다양한 심리적·환경적 지원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표집대상이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32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역의 제한점을 갖는다. 지역을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좀 더 다양한 지역의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설문지를 사용하여 양적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지만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면담과 관찰 등의 방법을 이용한 질적 연구로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음악교수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변인들을 찾아 음악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음악과 관련한 교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명순, 이수경, 김현주 (2007). 쟁점연구: 국가수준 유치원교육과정 표현생활영역의 이론적 정립을 위한 탐색연구. **유아교육연구**, 27(1), 123- 143.
- 김민정 (2007). 유아교사 및 예비유아교사의 자아개념 및 교사효능감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세은 (2014). 어린이집 교사의 기질과 역할수행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순남 (2000). 유치원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따른 역할 수행에 따른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 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은심, 박수미 (2003). 유치원교사의 동작교수효능감에 따른 동작교육에 대한 태도 및 교수실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2), 241-266
- 김현진 (2004).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교사의 성격특성과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형주 (2010). 교사가 지각한 유아기질 및 교사기질이 교사-유아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 박주연 (2014). 유아교사의 음악활동에 대한 지식, 인식 및 교수 효능감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진성, 문혁준 (2006). 유치원 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 음악교수의 실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 44(9), 9-19
- 방은영, 박찬옥 (2005). 유치원 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에 대한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9(4), 5-30
- 백병부, 성열관 (2011). 교사의 혁신적 태도 및 신념의 내면화 결정 요인 분석: 경기도 교육청의 혁신학교 관련 연수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28(3), 101-125.
- 서란아 (2016). 유아교사의 기질과 유아의 자기주도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우순형 (2016). 유아교육기관 교사의 기질과 역할수행능력간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정아 (2017). 유아교사의 기질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의 관계: 교사효능감,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이민정 (2002). 음악활동에 관한 교사의 태도 및 교수실제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

아보육학, 30, 19-38.

이슬기 (2013). 교사의 음악교수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정서운동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의 애착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은주 (2005). 취학전 말더듬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질 및 양육행동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이희진 (2010). 유치원 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과 음악활동 실제: 경력, 학력 및 연수경험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임미경, 현경실, 조순이, 김용희, 이예스터 (2010). **음악교수법**: 서울: 학지사.

정일환 (200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대구카톨릭대학교 출판부.

정혜선, 김수영 (2008). 가정환경변인과 유아교사 변인이 유아의 음악적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2), 125-137.

조부경, 백은주, 서소영 (2001). 유치원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연구. **아동학회지**, 22(2), 361-373.

조형숙 (1998). 유아교사의 과학교수효능감에 대한 자기효능감. **유아교육연구**, 18(2), 283-301.

주삼환 (2003).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장학의 이론과 기법**. 학지사.

황인주 (2014). 유아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유선택활동 분석: 만3,4,5세를 중심으로. **영유아교육연구**, 17, 45-61.

Ashton, P., & Webb, R. (1986). *Making a difference: Teacher's sense of efficacy and student achievement*. New York, NY: Longman.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 L. Lawrence Erlbaum Associates.

Campbell, P. S., & Scott-kassner, C. (2013). *Music in childhood*. New York: Schirmer Books.

Choksy, L. (1988). *The Kodaly Method: comprehensive music education from infant to adult*. NJ: Prentice-Hall.

Gallagher, K. C., & Mayer, K. (2008). Enhancing Development and learning through teacher-child relationships, *Young Children*, 63(6), 80-87.

Gibson, S., & Dembo, M. H. (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74(4), 569-582.

Gusket, R. (2002).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teacher change. *Teachers and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8(3), 381-391.

- Haines, B. J. E., & Gerber, L. (1996). *Leadin Young Children to Music*.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Murphy, M. K., & Brown, T. S. (1986). A comparison of preferences for instructional objectives between teacher and student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4, 134-139.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ew York, NY: Brunner/Mazel.
- Westervelt, G., Sibley, A., & Schaack, D. (2009). Quality in early childhood programs. In S. Feeney, A. Galper, & C. Seefeldt(Eds.). *Continuing issue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pp.83-99).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 Wiliam, D. (2007). *Formative assessment: Caveat emptor*. In C. A. Dwyer(Ed.), *The future of assessment: Shaping teaching and learning*. 279-303. Ma hwah, NJ: Erlbaum.

ABSTRACT

**The Influence of Temperamen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Music Teaching Efficacy**

Ahn, Hyoun-Jin · Moon, Hae-Lyu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usical teaching effica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ccording to—the experiences of musical training and scholarship, and also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temperamen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heir music teaching efficacy. This study was conducted on 321 early childhood teachers in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located in Seoul and Kyonggi-do. Data were analysed using t-test,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escribed according to study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higher the musical training and scholarship experience, the higher the difference in music teaching efficacy. Second, the temperamen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was found to be highly correlated with the music teaching efficacy; As the socialit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increased, general efficacy, which is a subfactor of music teaching efficacy, was also increased. The lower the emotionality was and the higher the activity was, the more the personal efficacy was increased. Temperamen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re important intrinsic variables promoting music teaching efficacy.

Key words: early childhood teacher, musical training and scholarship experience, temperament, music teaching efficacy

투고일: 8월 10일, 심사(수정): 10월 5일(10월 10일), 게재확정일: 11월 12일